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OSPG)의 구인타당화

원 영 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음악영재성 판별에서 부모의 관찰은 잠재된 영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중요하다. 또한 부모관찰정보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후속되는 판별 전 과정의 타당성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사관찰추천제 및 음악영재성 판별모형에 투입되는 부모관찰정보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2차)의 타당화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나아가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의 내실화 및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부모관찰정보지(2차)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부모관찰정보지(2차)의 최종 40문항을 수렴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음악(국악) 영재성의 심리학적 구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관찰정보지(2차)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 추정 결과, 높은 신뢰도 수준(내재적 특성 문항 $r=.939$,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 $r=.887$)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타당화 결과는 부모관찰정보지(2차)가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타당한 검사도구로서 영재 판별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함을 반영해준다.

주제어: 음악영재성, 국악영재성, 부모관찰정보지, 선별, 타당화

I. 서 론

영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영재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실험적 연구의 결과는 실제 영재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영재교육 내의 판별 방식이 교사관찰추천으로 개편된 점은 더욱 타당

교신저자: 원영실(yewon97@hanmail.net)

* 이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2011) 연구기금 지원에 의해 수행된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 및 교사 관찰정보지의 타당화’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음.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가 구분되어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제목에 ‘음악(국악) 영재성’으로 명시하였음. 타당화를 거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는 국악영재성 및 서양음악영재성 선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검사지를 의미함.

한 영재 판별에 관한 논의의 결과가 반영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새로운 판별 방식의 도입 기저에는 사교육의 결과로 조형된 영재성에 초점을 둔 기존 영재 판별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해당 영재의 잠재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둔 판별을 지향하고자 하는 국가 기관의 의지가 녹아 있다. ‘학습된 영재성으로부터 탈피함과 동시에 좀 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별 결과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사관찰추천제’는 향후 국내 영재 판별 현장에 지속적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사관찰추천제의 투입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실질적인 실행과 해당 결과의 도출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입되었기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환언하면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닌 판별 결과의 도출을 위한 선행적 구비 조건들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 중심으로 투입된 제도였기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교사관찰추천제의 시범 운영기간 동안 서울시 교육청에서 투입한 부모 및 교사 관찰추천 양식을 받아 든 추정 영재의 부모 및 담당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다. 나아가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된 부모관찰정보 문항의 내용 및 구인 타당도, 신뢰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투입되는 중대한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학부모와 일선 교사의 불만이 수면으로 드러나자 서울시 교육청은 결국 2011년 하반기 실시되는 교사관찰추천 판별 전 과정에서 학부모 관찰 보고 과정을 제거해 버리는 선택을 하였다.

영재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관찰은 잠재된 예술영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중요하다. 부모는 예술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이며, 교사는 그러한 부모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술영재 판별의 첫 과정에 추정 영재의 부모 및 교사의 관찰 보고가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것이다. 선행 논의에 따른 제반 여건의 준비없이 우선적으로 투입된 정책에 대한 사회심리적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판별 방법에 대한 학부모나 교사의 이해부족과 부정적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도입된 방법이 제대로 기능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판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환언하면 예술영재성 추적을 위한 부모의 관찰 보고 자체가 ‘무의미하고 필요 없는, 또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골치 아픈 과정’이 아님을 인식해야 하며, 나아가 그들의 추적 보고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구비하는 것이 영재 판별 전문가의 우선적 과제임을 숙고해야 한다. 만약 객관적이고 타당한 부모관찰정보 문항이 구비된다면, 서울시 교육청을 포함한 국내 영재 판별 기관은 2011년 영재 판별 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거한 부모 관찰 보고 과정을 영재 판별 첫 단계에 재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부모관찰정보 문항은 예술영재성에 대한 일선 학부모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지금까지 드러났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답변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를 테면 부모 관찰 보고 시, 음악(국악) 수상 실적을 기입해야 하는지, 음악성취도를 기입해야 하는지, 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음악(국악) 영재성에 관하여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음악(국악) 영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과 관련

된 학부모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듯 교사관찰추천제 첫 단계에 투입되는 부모관찰정보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는 영재 판별 전 과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다단계 판별 과정에서 1 단계 판별 결과의 타당성이 미확보되면 후속되는 판별 과정의 타당성은 기대할 수 없다. 환언하면 판별 첫 단계에 투입되는 검사도구의 타당성 검증은 후속되는 영재 판별의 타당도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교사관찰추천 판별 첫 단계에 투입되는 부모관찰정보지(OSPG)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함으로써 음악(국악) 영재 판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음악(국악) 영재 판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1차)의 문항개발 및 적용(원영실, 2011)’ 연구의 후속 연구를 담당한다. 연구자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1차)의 문항을 개발하고 그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부모관찰정보지(1차)의 교육적 적용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구인타당도 검증 및 신뢰도 추정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선행 개발된 부모관찰정보지(1차, OSPG-1) 문항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음악(국악) 영재 판별 현장에 즉각적으로 투입 가능한 객관적인 검사도구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최종 개발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는 음악(국악) 영재교육 현장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일반 예술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예술영재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영재성에 대한 부모의 관찰 보고는 국악을 포함한 음악 영재성을 추적함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음악영재와 비교적 장시간을 함께 지내는 부모는 일상 속에서 자녀의 음악에 대한 잠재력 및 창의성, 동기적 특성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인지할 수 있는 존재다. 즉 음악영재성에 대한 부모의 관찰 정보는 그 자체가 해당 학생의 잠재된 영재성을 가려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원영실, 2011). 특히 음악영재성의 판별 시기로 가장 적합한 유치원 시기의 부모관찰정보는 다른 판별도구보다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다른 검사도구보다 부모의 관찰 정보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어 선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원영실, 2008). Jacobs는 유치원 아동 654명을 대상으로 Wechsler의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IQ 125 이상인 19명의 아동을 가려내어 영재로 지정하였다. 654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그들의 부모는 자녀가 지적으로 영재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또한 12명의 유치원 교사는 654명의 아동이 유치원 시절 그들 학급에서 지적으로 뛰어났다고 생각되는 아동의 이름을 지적하도록 요청받았다. 연구 결과, 부모는 전부 26명을 지적했는데 그들 중 16명은 영재이고 10명은 아님으로써 영재 선정에 대한 부모의 효율성 점수는 76%

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는 45명을 지적하였으나 그들 중 2명만 영재로서 유치원 교사의 효율성은 9.5%에 불과했다. Jacobs의 연구는 아동의 음악영재성에 대한 부모의 관찰 정보가 교사에 비하여 더욱 타당할 수 있음을 보고해 준 결과이다(원영실, 2008, 2009, 2011).

어린 시기에 발현되는 음악영재성을 발견하고 가장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재의 부모다. 부모는 습관 및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을 통하여 자녀의 잠재된 영재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모의 인지는 자녀로 하여금 전문가를 찾게끔 만드는 견인차의 역할을 한다(원영실, 2008, 2009). 문제는 부모의 관찰 보고가 다른 평가 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나아가 비전문가인 부모의 주관성이라는 점에 있다. 음악 전문가의 평가 역시 주관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평가자의 주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보다 객관적인 판별 도구의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것이 음악영재 판별 전문가의 과제이다. 그러므로 비전문가인 부모의 주관성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판별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결국 부모 관찰 보고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악영재의 심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영재성 관찰 문항을 구성하고, 구성된 문항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과 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원영실(2010, 2011)은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 정보지(1차, OSPG-1)의 문항을 개발하고 교육적 적용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OSPG-1 문항의 교육적 적용 탐색 과정에서 OSPG-1의 구인타당도 검증 및 더욱 안정적인 신뢰도의 추정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이 영재 판별에 있어서 완벽한 판별 결과의 산출이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비록 다단계의 판별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영재로 선별되고 판별된 아동만이 영재이며 그렇지 못한 아동은 영재가 아니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할 수 있는 판별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판별 결과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통해 학부모나 일선 교사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면, 보다 타당한 판별 방법에 관한 연구들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좀 더 타당한 판별 방법에 대한 모색은 음악영재성 관련 연구에도 드러나 있다. 국내의 경우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에 의해 꾸준히 수행되어 온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경희나 최은식,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원영실이 그와 같은 연구의 측면을 담당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상기 학자들의 판별 연구에서 누락되지 않는 평가 방법이 바로 부모의 관찰 정보를 활용한 방법이다.

먼저 성경희(1993)는 음악영재 선발 단계를 1차 선별 과정과 2차 변별 및 판별 과정으로 나누었고, 판별 시기를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시기로 제안하였다. 그의 선발 단계에서 부모의 관찰 정보는 1차 선별 과정에 투입되며, 유치원·초등·중등 전 과정에 걸쳐 누락되지 않는 평가 도구이다. 최은식(2003)은 음악영재 선발을 위한 5단계의 다단계 과정을 제시하였다. 1단계 발굴, 2단계 기초검사, 3단계 음악성검사, 4단계 창의성검사, 5

단계 적응검사로 구성된 그의 선발 모형에서 부모관찰정보는 1단계와 2단계에 투입된다. 1단계 발굴 단계에서는 부모의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2단계 기초검사 단계에서는 부모의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된다. 1단계의 부모 추천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선별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되며, 2단계의 부모 면담을 통해 보다 면밀한 선별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분명한 점은 부모 추천 혹은 부모 면담 모두 음악영재성 판별 초기 단계에 투입되는 평가 도구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2006, 2007)은 잠재된 음악영재성의 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의 조건을 제안하였다. 첫째, 숙련된 연주가의 눈을 활용한 선발 둘째, 장기간에 걸친 관찰을 활용한 판별 셋째, 표준화된 예술 분야 기초능력 혹은 적성검사를 활용한 선발 넷째, 부모 및 교사·동료의 추천서 활용, 다섯째, 예술적 재능 발굴을 위한 전국적 차원의 1차 선별이 그것이다. 또한 예술영재성 판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양적과 질적으로 분류하였고, 부모의 관찰 추천은 선발을 위한 질적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의 제안에도 잠재성 선발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부모관찰추천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영실(2010)은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성의 판별 방법을 양적 평가 방법과 질적 평가 방법으로 모형화한 후, 두 모형을 결합하여 판별할 때 가장 타당한 판별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부모관찰정보는 음악(혹은 국악)적성검사, 교사관찰정보와 함께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 모형 중에서 양적 평가 영역에 해당된다. 즉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 모형에도 부모관찰정보가 누락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모의 관찰 정보는 추정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을 보고해주는 타당한 자료이며, 그만큼 선별 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는 평가 도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추정 영재의 부모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찰 보고를 위한 객관적인 문항을 개발하고, 문항에 대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요구가 될 수밖에 없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부모관찰정보지(2차) 타당화 연구의 모집단은 현재 국악이나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있거나, 잠재능력이 우수하여 향후 음악(국악) 분야로의 진학을 원하는 잠재적 음악(국악) 영재의 부모이다. 현재 음악(국악) 영재교육원이나 영재교육급에 투입되어 있는 영재의 부모를 포함하여 국내 명문 예술계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음악(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의 부모가 이 연구의 대상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국악) 영재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여 중등 연령에 속하는 음악(국악) 영재의 부모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표본집단은 서울소재 S예술 중·고등학교와 NT예술 중·고등학교, 경기도 소재 K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국악 및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영재의 부모다.

이 연구에서 타당화의 대상인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문항 분석을 위하여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OSPG-2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OSPG-2의 연구 대상은 총 261명으로, 국악영재 123명과 서양음악영재 138명의 부모로 구분된다. OSPG-2의 연구 대상자 구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OSPG-2 타당화를 위한 연구대상 구성

| 구분 | 국악 | 서양음악 |
|----------|------|------|
| 영재부모 | 123명 | 138명 |
| 합계 261 명 | | |

서울 소재 S예술 중·고등학교와 NT예술 중·고등학교, 경기도 소재 K예술 중·고등학교 학생을 음악(국악) 영재 집단으로 설정한 근거는 실제로 높은 경쟁력을 통하여 선발된 그들의 음악적 능력이 일반 학교 학생에 비해 우수한 것이 사실이며, 그들이 성장하여 소위 명문대의 예술학부로 진학하고, 졸업 후 국악이나 서양음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국악) 영재의 부모라 함은 <표 1>에서 보이는 영재의 부모를 의미하며 부모관찰정보지(2차)는 <표 1>에서 보이는 영재의 부모를 대상으로 투입되는 검사지를 의미한다. 유효 사례에 해당되는 연구대상자 총 261명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OSPG-2 타당화 연구의 연구대상 특성

| 구분 | 국악영재 | | 서양음악영재 |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 응답대상 | 부 | 10 | 8.1 | 9 | 6.5 |
| | 모 | 103 | 83.7 | 119 | 86.2 |
| | 부모 모두 | 9 | 7.3 | 10 | 7.2 |
| | 무응답 | 1 | 0.8 | 0 | 0 |
| | 응답대상 소계 | 123 | 100 | 138 | 100 |
| 부모의 직업 | 부모 모두 예술계통 종사 | 3 | 2.4 | 5 | 3.6 |
| | 부만 예술계통 종사 | 5 | 4.1 | 2 | 1.4 |
| | 모만 예술계통 종사 | 9 | 7.3 | 34 | 24.6 |
| | 부모 모두 예술계통 종사 안함 | 106 | 86.2 | 96 | 69.6 |
| | 무응답 | 0 | 0 | 1 | 0.7 |
| | 부모의 직업 소계 | 123 | 100 | 138 | 100 |
| 부모의 전공 | 부모 모두 예술계통 전공 | 6 | 4.9 | 10 | 7.2 |
| | 부만 예술계통 전공 | 3 | 2.4 | 1 | 0.7 |
| | 모만 예술계통 전공 | 16 | 13.0 | 50 | 36.2 |
| | 부모 모두 예술계통 전공 안함 | 96 | 78.0 | 77 | 55.8 |
| | 무응답 | 2 | 1.6 | 0 | 0 |
| | 부모의 전공 소계 | 123 | 100 | 138 | 100 |

| | | | | | |
|---------------------|-----------------|-----|------|-----|------|
| 자녀의 예술교육 시작시기 | 유치원(혹은 그 이전 시기) | 34 | 27.6 | 48 | 34.8 |
| | 초등학교 1~3학년 | 23 | 18.7 | 50 | 36.2 |
| | 초등학교 4~6학년 | 29 | 23.6 | 39 | 28.3 |
| | 중학교 시기 | 35 | 28.5 | 1 | 0.7 |
| | 고등학교 시기 | 2 | 1.6 | 0 | 0 |
| | 무응답 | 0 | 0 | 0 | 0 |
| | 자녀의 예술교육 시작 소계 | 123 | 100 | 138 | 100 |
| 자녀의 예술교육 지속시기 | 6개월 미만 | 1 | 0.8 | 0 | 0 |
| | 1년 미만 | 2 | 1.6 | 1 | 0.7 |
| | 1년~2년 미만 | 12 | 9.8 | 14 | 10.1 |
| | 2년~3년 미만 | 12 | 9.8 | 14 | 10.1 |
| | 3년 이상 | 95 | 77.2 | 109 | 79.0 |
| | 교육 무 | 1 | 0.8 | 0 | 0 |
| | 무응답 | 0 | 0 | 0 | 0 |
| 자녀의 예술교육 지속 소계 | 123 | 100 | 138 | 100 | |
| 부의 학력 | 대학원 졸업 | 29 | 23.6 | 35 | 25.4 |
| | 대학 졸업 | 67 | 54.5 | 93 | 67.4 |
| | 고등학교 졸업 | 23 | 18.7 | 10 | 7.2 |
| | 중학교 졸업 이하 | 0 | 0 | 0 | 0 |
| | 무응답 | 4 | 3.3 | 0 | 0 |
| | 부의 학력 소계 | 123 | 100 | 138 | 100 |
| 모의 학력 | 대학원 졸업 | 15 | 12.2 | 25 | 18.1 |
| | 대학 졸업 | 73 | 59.3 | 94 | 68.1 |
| | 고등학교 졸업 | 34 | 27.6 | 18 | 13.0 |
| | 중학교 졸업 이하 | 0 | 0 | 0 | 0 |
| | 무응답 | 1 | 0.8 | 1 | 0.7 |
| | 모의 학력 소계 | 123 | 100 | 138 | 100 |
| 연봉 | 1000만원 미만 | 8 | 6.5 | 4 | 2.9 |
| | 1000~3000만원 미만 | 11 | 8.9 | 7 | 5.1 |
| | 3000~5000만원 미만 | 24 | 19.5 | 23 | 16.7 |
| | 5000~8000만원 미만 | 31 | 25.2 | 37 | 26.8 |
| | 8000~1억 미만 | 24 | 19.5 | 24 | 17.4 |
| | 1억 이상 | 25 | 20.3 | 42 | 30.4 |
| | 무응답 | 0 | 0 | 1 | 0.7 |
| | 연봉 소계 | 123 | 100 | 138 | 100 |

부모관찰정보지(2차) 문항에 대한 최종 응답자 261명의 응답 대상을 보면, 국악영재 및 서양음악영재 모두 모(母)의 응답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국악영재의 경우 83.7%, 서양음악영재의 경우 86.2%가 모친이 응답하였다. 부모의 직업을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부모 모두 예술계통 비종사의 비율이 86.2%로 나타났다. 모(母)만 예술계통 종사 비율이 7.3%, 부(父)만 예술계통 종사 비율 4.1%, 부모 모두 예술계통 종사 비율은 2.4%였다. 즉 예술계통 비종사의 비율이 양친, 혹은 부친이나 모친이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비율(13.8%)보다 현저히 높았다. 서양음악영재의 경우 부모 모두 예술계통 비종사의 비율이 69.6%로 나타났다. 즉 예술계통 비종사의 비율이 양친 혹은 부친이나 모친이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비

율(29.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악영재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다. 부모의 전공을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부모 모두 예술계통 비전공자의 비율이 78%로, 양친 혹은 부친이나 모친이 예술계통을 전공한 비율(20.3%)보다 현저히 높았다. 서양음악영재의 경우는 부모 모두 예술계통 비전공자의 비율이 55.8%, 모(母)만 예술계통 전공 비율 36.2%, 부(父)만 예술계통 전공 비율이 0.7%, 부모 모두 예술계통 전공 비율이 7.2%로 나타났다. 즉 양친 혹은 부친이나 모친이 예술계통을 전공한 비율이 국악영재는 20.3%, 서양음악영재는 44.1%로, 서양음악영재 부모의 예술계통 전공 비율이 국악영재의 부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예술교육(전공레슨) 시작 시기를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유치원(27.6%)·초등학교(42.3%)·중학교(28.5%)에 걸쳐 매우 다양한 연령대에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서양음악영재의 대부분은 유치원(34.8%)과 초등학교(64.5%) 시기에 전공레슨 교육을 시작한다. 국악영재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전공 교육 시작 시기가 더욱 빨라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중학교 시기에 들어와서야 시작하는 학생의 비율이 서양음악영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양음악영재는 대체적으로 어린 연령대에 전공레슨 교육을 시작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악이나 서양음악 전공 교육이 비교적 어린 연령대에 시작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시작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또한 국악영재교육의 시작 시점이 서양음악영재교육의 시작 시점보다 좀 느리다는 국악영재교육의 특성(원영실, 2008)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자녀의 예술교육(전공레슨) 지속 시기를 보면, 국악영재의 경우 77.2%, 서양음악영재의 경우 79.0%가 3년 이상에 응답하였다. 부(父)의 학력은 국악영재의 경우 대학원 졸업이 23.6%, 대학 졸업 54.5%로 대부분(78.1%) 고등교육과정까지 마친 경우로 나타났다. 서양음악영재는 대학원 졸업이 25.4%, 대학 졸업이 67.4%로 거의 대부분(92.8%) 고등교육과정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母)의 학력은 국악영재의 경우 대학원 졸업 12.2%, 대학 졸업 59.3%, 고등학교 졸업 27.6%로 나타났다. 서양음악영재는 대학원 졸업 18.1%, 대학 졸업 68.1%, 고등학교 졸업 13.0%로 나타났다. 가정의 연봉은 국악영재의 경우 5000~8000만원 미만의 응답률이 25.2%로 가장 많았으며, 서양음악영재는 1억 이상의 응답률이 30.4%로 가장 많았다.

2. 측정 도구: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용 부모관찰정보지(OSPG)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용 부모관찰정보지(OSPG)는 OSPG-1과 OSPG-2로 구분된다.

우선 OSPG-1은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의 부모를 대상으로 투입하는 검사지로 원영실(2010, 2011)에 의해 제작되었다. 처음 제작될 당시의 OSPG-1은 10인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8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0인의 전문가 집단은 국악 및 음악교육 전문가, 영재교육 및 교육평가 전문가, 현장 음악교사를 의미한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구성된 예비 문항을 10인의 전문가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수정 사항을 회신받았다. 또한 문저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회의와 온라인상의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시켰다. 10인의 전문가 집단이 제출한 최종 의견서를 바탕으로 OSPG-1 문

항을 수정 및 재구성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입회하에 2회의 회의 절차를 거쳐 OSPG-1의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OSPG-1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루어진 5단계 Likert식 척도이며, 자녀의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원하는 부모가 직접 자기 보고하는 형태의 검사지다. OSPG-1의 하위 영역은 2개의 대영역(내재적 특성, 외재적 환경 특성)과 5개의 소영역(음악성, 창의성, 동기,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기대,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가치화와 열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OSPG-1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771$ 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영역별 신뢰도 수준은 Cronbach's $\alpha=.410 \sim .699$ 로 나타남으로써, 결국 OSPG-1의 실제 교육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신뢰도 추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OSPG-2는 OSPG-1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번 연구를 위해 재구성된 검사지다. OSPG-1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82개의 문항이 총 46개의 문항으로 수렴됨으로써 OSPG-2의 문항이 구성되었다. 46개의 문항 중에서 내재적 특성을 설명하는 문항은 33문항으로, 음악성 구인을 설명하는 문항 14개, 창의성 구인을 설명하는 문항 4개, 동기 구인을 설명하는 문항 15개이다. 외재적 환경 특성을 설명하는 문항은 13문항으로,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기대를 설명하는 문항 5개와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가치화와 열정을 설명하는 문항 8개로 구성되어 있다. OSPG-1과 같이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루어진 5단계 Likert식 척도이며, 자녀의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원하는 부모가 직접 자기 보고하는 형태의 검사지다.

3. 연구 과정

음악(국악) 영재성의 개발 및 지속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환경 요인이 영재의 부모이다. 음악(국악) 영재의 부모를 대상으로 투입되는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타당화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선행 연구로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성의 의미를 추적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였다. 나아가 음악(국악) 영재성의 선별 및 판별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별히 기존 연구 중에서 부모관찰정보에 관한 선행 연구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또한 부모관찰정보지(1차, OSPG-1) 문항 개발 연구의 결과를 재검토하고 해당 문항의 구성 및 적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부모관찰정보지(1차, OSPG-1)의 문항 개발 시 활용된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새로 제작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를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를 대상으로 투입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수집 정리하였다.

셋째,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문항 평가를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을 포함한 기초통계 및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제작된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검증

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를 통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추정하였다.

넷째,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활용하여 추정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타당도 및 신뢰도 수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실제 예술영재 교육 현장 투입 및 적용에 관하여 최종 논의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OSPG-2의 타당화 방법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타당화를 위한 요인분석은 2차의 표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2010년~2011년에 걸쳐 OSPG-1의 문항을 개발하고 개발된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46개 문항으로 수렴하였다. 하지만 설명분산량 및 내적일관성 신뢰도 추정에 있어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2차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행하였다. 즉 OSPG-2의 타당화를 위해 SPSS 18.0 및 AMOS 7.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OSPG-2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은 상기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확인된 요인 구조가 지지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인 χ^2 , *CFI*, *TLI*, *RMSEA*의 수치들을 해석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OSPG-2의 신뢰도 검증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법 중에서 문항 간 측정의 일관성에 의해 추정되는 Cronbach's α 계수로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용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타당도

영재성 선별 검사도구의 핵심은 구인타당도의 확보에 있다. 구인타당도 검증은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는 인간의 심리적 속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의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을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의미한다(성태제, 2005).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 문항의 구인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탐색적 요인분석

1)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내재적 특성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내재적 특성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에서 χ^2 과 적합도를 통해 요인을 결정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에서 요인의 수가 결정된다. <표 3>에 보듯이 OSPG-2 내재적 특성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는 *RMSEA* 값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즉 *RMSEA* 값이 .05 이하(*RMSEA*<.05)면 좋은 적합도이고, *RMSEA* 값이 .08 이하(*RMSEA*<.08)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값이 .10 이하(*RMSEA*<.10)면 보통 수준의 적합도, *RMSEA* 값이 .10 이상(*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 지수를 의미한다(김주한 외 2009). 이와 같은 해석을 참고해 볼 때 OSPG-2의 내재적 특성 문항은 그 설명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RMSEA* 값이 점차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MSEA* 값은 점차 떨어져서 그 적합도 지수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3요인에서 4요인으로 되는 시점부터 *RMSEA* 값의 변화가 .01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형의 적합도 차이, 즉 적합도 변화량이 .01 이하면 적합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요인 수 증가에 따른 모형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OSPG-2의 내재적 특성 요인은 3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 OSPG-2 요인 모형 적합도 : 내재적 특성

| 요인 모형 | χ^2 | df | p | RMSEA | RMSEA 변화량 |
|--------|----------|-----|------|-------|------------------|
| 1요인 모형 | 1849.943 | 495 | .000 | .103 | |
| 2요인 모형 | 1207.536 | 463 | .000 | .079 | 1요인 → 2요인 : .024 |
| 3요인 모형 | 787.664 | 432 | .000 | .056 | 2요인 → 3요인 : .023 |
| 4요인 모형 | 679.389 | 402 | .000 | .052 | 3요인 → 4요인 : .004 |
| 5요인 모형 | 572.989 | 373 | .000 | .045 | 4요인 → 5요인 : .007 |
| 6요인 모형 | 505.332 | 345 | .000 | .042 | 5요인 → 6요인 : .003 |
| 7요인 모형 | 444.674 | 318 | .000 | .039 | 6요인 → 7요인 : .003 |

3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PG-2의 내재적 특성 요인은 음악성 13문항, 창의성 4문항, 동기 11문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OSPG-2 내재적 특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 문항 | 요인 | | |
|-------|------|-----|----|
| | 음악성 | 창의성 | 동기 |
| 문항 3 | .847 | | |
| 문항 13 | .842 | | |
| 문항 6 | .783 | | |
| 문항 12 | .780 | | |
| 문항 9 | .746 | | |
| 문항 8 | .733 | | |

| | | | |
|-------|------|-------|------|
| 문항 2 | .699 | | |
| 문항 14 | .685 | | |
| 문항 4 | .669 | | |
| 문항 1 | .637 | | |
| 문항 5 | .617 | | |
| 문항 11 | .593 | | |
| 문항 10 | .581 | | |
| 문항 20 | | | |
| 문항 7 | | | |
| 문항 19 | | | |
| 문항 17 | | -.911 | |
| 문항 16 | | -.857 | |
| 문항 18 | | -.801 | |
| 문항 15 | | -.602 | |
| 문항 28 | | | .839 |
| 문항 30 | | | .835 |
| 문항 21 | | | .808 |
| 문항 33 | | | .795 |
| 문항 25 | | | .709 |
| 문항 32 | | | .637 |
| 문항 23 | | | .630 |
| 문항 29 | | | .606 |
| 문항 27 | | | .580 |
| 문항 24 | | | .497 |
| 문항 26 | | | .441 |
| 문항 22 | | | |
| 문항 31 | | | |

<표 4>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반하여 재정리된 OSPG-2 내재적 특성 문항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3요인 모형 구조에 근거한 OSPG-2 내재적 특성 문항

| 대영역 | 소영역 | 문항 번호 | 문 항 내 용 |
|--------|-----|-------|-------------------------------------------------------|
| 내재적 특성 | 음악성 | 1 | 나의 자녀는 유아시절(5세~7세),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 비교적 정확하게 따라 부를 수 있었다. |
| | | 2 | 타인이 부르는 곡조가 틀렸을 때, 나의 자녀는 ‘틀렸다’라는 지적을 한다. |
| | | 3 | 나의 자녀는 음정의 차이(혹은 변화)를 잘 지각한다. |
| | | 4 | 나의 자녀는 리듬에 대한 예민한 지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
| | | 5 | 나의 자녀는 노래를 들으면 가사보다 선율을 먼저 기억한다. |
| | | 6 | 나의 자녀는 일정한 선율을 듣고 그 선율을 비교적 쉽게 따라한다. |
| | | 8 | 나의 자녀는 또래에 비하여 음악(혹은 국악) 선율을 빨리 외울 수 있다. |
| | | 9 | 나의 자녀는 악기 및 노래를 또래에 비하여 빨리 습득한다. |

| | | | |
|-----------|-----|----|-------------------------------------------------------------|
| 내재적 특성 동기 | 창의성 | 10 | 나의 자녀는 스스로 음악을 분석하면서 듣거나 연주한다. (예: 화성 진행이나 주제 선을 따라가며 듣기 등) |
| | | 11 | 나의 자녀는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잘 구별한다. |
| | | 12 | 나의 자녀는 리듬의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
| | | 13 | 나의 자녀는 음높이(pitch)를 구별할 수 있다. |
| | | 14 | 나의 자녀는 음악의 역동성(dynamics)을 또래에 비하여 잘 느낄 수 있다. |
| | | 15 | 나의 자녀는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한다. |
| | | 16 | 나의 자녀는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영똥한 제안이나 생각’으로 부모를 놀라게 한다. |
| | | 17 | 나의 자녀는 주변으로부터 ‘독특한 아이야’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
| | | 18 | 나의 자녀는 자기 스스로 ‘나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
| | | 21 | 나의 자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을 한다. |
| | | 23 | 나의 자녀는 악기를 연주할 때 몰입한다. |
| | | 24 | 나의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혹은 국악)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
| | | 25 | 나의 자녀는 장시간 연습하거나 음악(혹은 국악)을 감상해도 지루해하지 않는다. |
| | | 26 | 나의 자녀는 다양한 음악 이론이나 음악 역사에 지속적인 흥미를 보인다. |
| | | 27 | 나의 자녀는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주위의 사물이나 벌어지는 상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 | 28 | 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한다. |
| | | 29 | 나의 자녀는 난이도가 있는 곡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다. |
| | | 30 | 나의 자녀는 음악(혹은 국악) 과제를 끈질기게 연습한다. |
| | | 32 | 나의 자녀는 음악(혹은 국악) 과제를 수행할 때 집중도가 높다. |
| | | 33 | 나의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창이나 악기연습을 스스로 한다. |

2)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이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에서 χ^2 과 적합도를 통해 요인을 결정할 경우, 적합도 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점에서 요인의 수가 결정된다. 이는 내재적 특성 분석의 경우와 동일하다. <표 6>에 보듯이 OSPG-2 외재적 환경 특성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는 *RMSEA* 값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RMSEA* 값은 점차 떨어져서 그 적합도 지수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4요인에서 5요인으로 되는 시점부터 *RMSEA* 값의 변화가 .01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요인 수 증가에 따른 모형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과 적은 수의 요인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요인은 4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 OSPG-2 요인 모형 적합도 : 외재적 환경 특성

| 요인 모형 | χ^2 | df | p | RMSEA | RMSEA 변화량 |
|--------|----------|----|------|-------|------------------|
| 1요인 모형 | 501.032 | 65 | .000 | .161 | |
| 2요인 모형 | 242.908 | 53 | .000 | .117 | 1요인 → 2요인 : .044 |
| 3요인 모형 | 120.421 | 42 | .000 | .085 | 2요인 → 3요인 : .032 |
| 4요인 모형 | 44.900 | 32 | .065 | .039 | 3요인 → 4요인 : .046 |
| 5요인 모형 | 28.571 | 23 | .195 | .031 | 4요인 → 5요인 : .008 |

4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요인은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기대 5문항, 음악(국악) 가치화 3문항, 음악(국악)에 대한 열정 2문항, 음악(국악) 교과 중요성 2문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OSPG-2 외재적 환경 특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 문항 | 요 인 | | | |
|-------|------|------|--------|--------|
| | 가치 | 열정 | 교과 중요성 | 지지와 기대 |
| 문항 41 | .752 | | | |
| 문항 40 | .667 | | | |
| 문항 39 | .570 | | | |
| 문항 42 | | .880 | | |
| 문항 43 | | .665 | | |
| 문항 44 | | | | |
| 문항 45 | | | -.860 | |
| 문항 46 | | | -.752 | |
| 문항 35 | | | | -.864 |
| 문항 36 | | | | -.788 |
| 문항 37 | | | | -.690 |
| 문항 34 | | | | -.549 |
| 문항 38 | | | | -.426 |

<표 7>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반하여 재정리된 OSPG-2 외재적 특성 문항들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8>와 같다.

<표 8> 4요인 모형 구조에 근거한 OSPG-2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

| 대영역 소영역 | 문항 번호 | 문항 내용 |
|-----------|-------|---------------------------------------------------------|
| 외재적 환경 특성 | 34 | 나의 자녀는 음악(혹은 국악) 영역에서 성공할 것이다. |
| | 35 | 나는 내 자녀의 음악(혹은 국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 | 36 | 자녀가 원한다면 나는 내 자녀의 음악 레슨을 기꺼이 지원해주고 싶다. |
| | 37 | 나는 내 자녀가 앞으로 음악(혹은 국악)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기를 기대한다. |
| | 38 | 나의 지원으로 인하여 내 자녀의 음악 능력이 날로 향상하고 있다. |
| | 39 | 나의 삶에 있어서 음악(혹은 국악)은 매우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
| | 40 | 만약 음악(혹은 국악)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불행하였을 것이다. |
| | 41 |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혹은 국악)은 매우 중대한 삶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 | 42 | 나는 현재 연주 활동이나 연주회 관람 등 다양한 음악(혹은 국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 | 43 | 나는 내 삶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또는 허락된다면) 다양한 음악 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한다. |
| 음악 교과 중요도 | 45 | 음악(혹은 국악) 수업은 내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과다. |
| | 46 | 음악교과는 국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만큼 중요한 교과다. |

나. 확인적 요인분석

1)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내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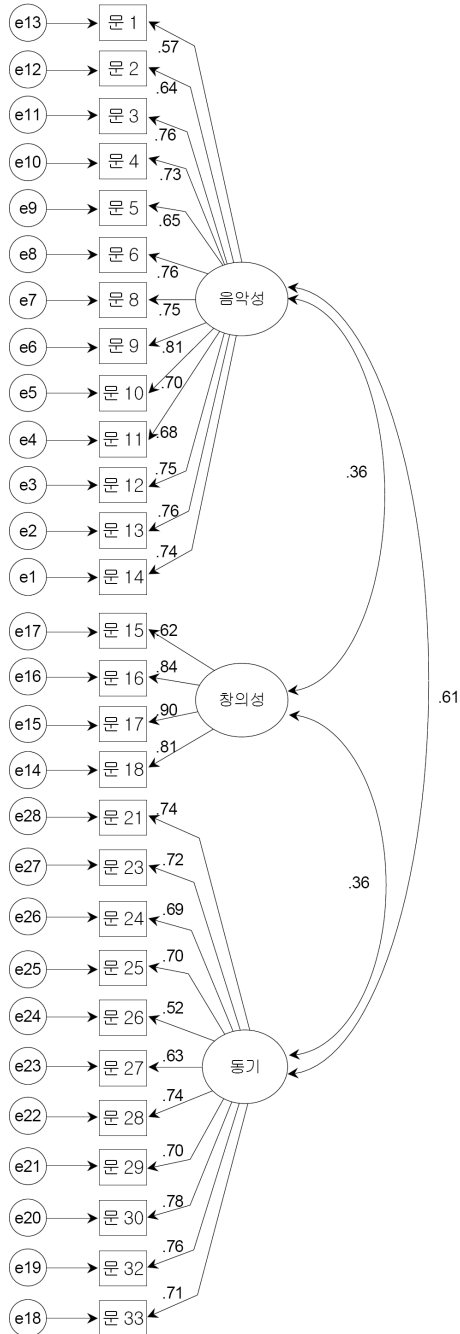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내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3 요인 구조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OSPG-2 내재적 특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N=261)

| 모형 | χ^2 | df | CFI | TLI | RMSEA |
|--------|----------|-----|------|------|-------|
| 내재적 특성 | 734.242 | 347 | .906 | .890 | .066 |

<표 9>에서 나타난 CFI, TLI, RMSEA의 수치들에 대한 적합도 해석 기준은,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매우 좋은 것이고, .06 ~.08 사이면 좋은 적합도라 볼 수 있다. 또한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김주환 외, 2009). 따라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내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내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OSPG-2 내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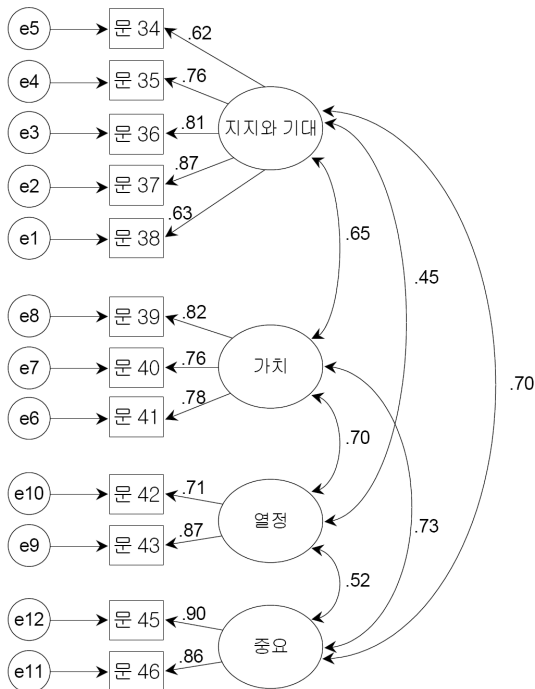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4요인 구조가 지지되었다. 이를 다시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OSPG-2 외재적 환경 특성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N=261)

| 모형 | χ^2 | df | CFI | TLI | RMSEA |
|-----------|----------|----|------|------|-------|
| 외재적 환경 특성 | 128.448 | 48 | .951 | .920 | .080 |

<표 10>에서 나타난 CFI, TLI, RMSEA의 수치들에 대한 적합도 해석 기준은, 내재적 특성 문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RMSEA의 경우 .05 이하면 매우 좋은 것이고, .06-.08 사이면 좋은 적합도라 볼 수 있다. 또한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OSPG-2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2.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용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신뢰도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해당 검사도구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일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항 신뢰도 수준의 확보는 검사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1회 측정으로 문항의 신뢰성을 추정하는 내적 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중에서 Cronbach's α 신뢰도를 구하였다. 최종 수립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 추정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OSPG-2의 내재적 특성·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

| 대영역 | 소영역 | α | 총 α | 대영역 | 소영역 | α | 총 α |
|-----------|-----|----------|------------|-----------------|--------|----------|------------|
| 내재적 특성 | 음악성 | .932 | .939 | 외재적 환경 특성 | 지지와 기대 | .845 | .887 |
| | 창의성 | .871 | | | 가치 | .827 | |
| | 동기 | .914 | | | 열정 | .762 | |
| | | 교과 중요도 | .868 | | | | |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Cronbach's α 계수를 보면, 내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총 α 계수는 .939,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총 α 계수는 .887로 나타났다. 즉 문항의 내적일관성 추정 결과 부모관찰정보지(2차)의 신뢰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1>에서 보듯이 내재적 특성의 하위 영역인 음악성 요인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932, 창의성 요인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71, 동기 요인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914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특성의 하위 영역별 문항 신뢰도 수준도 총 신뢰도 수준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재적 환경 특성의 하위 영역인 부모의 지지와 기대 요인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45, 음악(국악) 가치화 문항 .827, 음악(국악)에 대한 열정 문항 .762, 음악(국악) 교과 중요도 문항 .868로 나타남으로써, 외재적 환경 특성의 하위 영역별 문항 신뢰도 수준도 높거나 수용가능한 범위로 나타났다.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신뢰도 추정 결과는 부모관찰정보지(2차)의 실제 교육 현장 투입이 즉시적으로 가능함을 반증해준다.

V. 결론 및 논의

예술영재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예술영재교육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꾸준히 수행된 다면적인 연구 결과들은 실제 예술영재 교육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들을 산출하였다. 예컨대 2008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면 투입된 교사관찰추천 판별은 더욱 타당한 예술영재

판별에 관한 논의 및 연구의 결과가 반영된 정책이라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판별 방식 도입의 기저에는 학습된 영재성에 초점을 둔 기존 영재판별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영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잠재능력 및 창의성, 동기 구인에 초점을 둔 판별을 지향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기존의 판별 방식보다 다소 복잡해진 교사관찰추천제는 그 취지와 목적은 좋았으나, 정책 수행에 투입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에 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없이 실행되었기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예술영재성 판별 1단계에 투입되는 부모 관찰 문항이 미처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행된 판별이었기에 복잡한 판별 방식의 투입에 비하여 판별의 타당성 및 효율성은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청은 2012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부모관찰정보지의 투입을 제거하였다. 또한 교사관찰추천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예술영재 판별 과정에서의 실질적 적용 사례를 찾기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1차 판별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지지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 수행되는 판별 절차의 타당성 또한 확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예술영재성 판별 1단계에 투입되는 부모관찰정보지(OSPG) 문항의 타당화를 도모함으로써 예술영재 판별 전 과정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음악(국악)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1차, OSPG-1)의 문항 개발은 원영실(2010, 2011)에 의하여 일정 부분 완료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문항의 구인타당도 추정에 있어서 일회성의 탐색적 요인분석에 머물렀기 때문에 추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발된 문항의 타당화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타당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예술영재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악 및 서양음악 영재의 부모를 표집하여 OSPG-2 문항을 투입하였고, 수거된 표집 데이터에 대한 문항 평가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여 OSPG-2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 추정을 통하여 OSPG-2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 문항의 타당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OSPG-2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내재적 환경 특성 문항은 3요인으로 묶였다. 3요인은 ‘음악성, 창의성, 동기’이다. 3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PG-2의 내재적 특성 문항은 음악성 13문항, 창의성 4문항, 동기 11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OSPG-2의 또다른 하위 요인인 외재적 특성 문항은 4요인으로 묶였다. 4요인은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지지 및 기대, 음악(국악) 가치화,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열정, 음악(국악) 교과 중요성’이다. 4요인 모형 구조를 채택한 결과, OSPG-2의 외재적 환경 특성 문항은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기대 5문항, 음악(국악) 가치화 3문항,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열정 2문항, 음악(국악) 교과 중요성 2문항으로 최종 구성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내재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지수 $RMSEA$ 는 .066, TLI 는 .890, CFI 는 .906으로 나타남으로써 OSPG -2 내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외제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적합도 지수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적합도 지수 $RMSEA$ 는 .080, TLI 는 .920, CFI 는 .951로 나타남으로써 OSPG-2 외제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요인의 모형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SPG-2 문항에 대한 신뢰도 추정 결과를 보면, 내재적 특성 문항에 대한 총 α 계수는 .939, 외제적 환경 특성 문항에 대한 총 α 계수는 .887로 나타났다. 즉 OSPG-2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내재적 특성의 하위 영역인 음악성 요인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932, 창의성 요인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71, 동기 요인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914로 나타났다. 즉 내재적 특성의 하위 영역별 문항 신뢰도 수준도 총 신뢰도 수준과 같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제적 환경 특성의 하위 영역인 부모의 지지·기대 요인 문항의 신뢰도 수준은 .845, 음악(국악) 가치화 문항 .827, 음악(국악)에 대한 열정 문항 .762, 음악(국악) 교과 중요도 문항 .868로 나타남으로써 외제적 환경 특성의 하위 영역별 문항 신뢰도 수준도 높거나 수용 가능한 범위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지지받은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는 결과 중심의 선행 학습된 영재성에 초점을 두어왔던 기존의 예술영재성 선별로부터 탈피하여 예술영재의 잠재력 발굴 및 해당 수준을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즉 기존의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 방법에 녹아 있던 ‘평가자의 주관성’과 ‘실기 기량 중심’의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검사도구이다.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는 국악을 포함한 음악 영재성에 녹아있는 심리학적 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가능케 한 검사도구이다. 영재성 판별이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음악(국악) 영재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의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OSPG-2는 판별 수행을 위한 조작적 정의를 가능하게 한 평가 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음악(국악) 영재성의 내재적 특성으로 ‘음악성, 창의성,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 구인이 설정될 수 있음을 증명해준 검사도구이다. 나아가 음악성의 하위 요인으로 ‘리듬 및 소리에 대한 인지 능력’, 창의성의 하위 요인으로 ‘일반창의성, 표현성, 창의적 호기심, 즉흥연주 및 작곡’,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동기의 하위 요인으로 ‘인내심, 열정, 집중력’의 구인이 설정될 수 있음을 검증해 준 검사도구이다. 또한 음악(국악) 영재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외제적 환경 특성으로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기대, 음악(국악) 가치화, 음악(국악)에 대한 부모의 열정, 음악(국악) 교과 중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상기의 심리학적 구인이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타당한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해준 검사도구이다.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의 타당화 결과를 통하여 영재의 부모는 음악(국악) 영재성에 녹아 있는 내재적 특성을 관찰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러한 영재성의 발현 및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이 드러났다. 즉 음악(국악) 영재의 부모는 자녀의 음악(국악) 영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준거로 ‘부모 자신의 신념과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신념과 지원 관련 문항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고 음

악(국악) 영재성 형성에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 준다.

음악(국악) 영재의 잠재성 선별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지금까지 예술영재성 판별 현장에 접근 가능성이 희박했던 잠재적 예술영재에게 선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검사도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은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는 국내의 음악(국악) 영재 교육원 및 영재학급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검사도구이다. 또한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투입된 교사관찰추천 판별 1단계에 투입 가능한 검사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별 1단계의 타당성 확보는 후속되는 판별 및 음악(국악) 영재 교육 과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국악) 영재성 선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2차, OSPG-2)는 판별자의 주관성으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추정 영재의 잠재 능력을 선별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검사도구가 그러하듯이 OSPG-2의 평가 결과가 곧 음악(국악) 영재성을 완벽하게 판별해 주었다고 보기에는 분명한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므로 OSPG-2가 제시하는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더욱 넓은 범위에서 잠재영재를 선별하고, 후속 과정을 통해 보다 정밀한 판별을 수행해 나갈 때,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주한,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성경희 (1993). **한국에서의 음악영재의 발굴과 교육의 방향. 음악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개소기념 심포지움.
- 성태제 (2005). **현대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원영실 (2008). **국악영재 판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음악과 문화, 19**, 109-146.
- 원영실 (2009). **국악영재 판별을 위한 가락 및 리듬 인지능력 검사도구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원영실 (2010). **음악영재 진단평가 모형 개발-국악 및 서양음악 분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원영실 (2011).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을 위한 부모관찰정보지의 문항개발 및 적용. 음악교육연구, 40(1)**, 241-273.
- 원영실 (2011). **음악(국악) 영재성 판별 모형. 한국음악연구, 49**, 165-201.
- 최은식 (2003). **음악영재. 예술영재교육 육성계획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6).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2007). **예술영재교육대상자 선발모형 개발 연구(II)**.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계문사.

= Abstract =

The Construct Validation of the OSPG-2 for Screening of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Won, YoungSil

Korea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Gifted in Arts

The OSPG(Observation Scale for Parents of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is one of the tools for screening of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So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OSPG has an influence on securing validity of the whole identific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OSPG-2 that input screening processing, and to suggest systematization of identification processing for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For the achievement of this purpose, this study administered the OSPG-2 to 261 gifted students aged between 13 and 16 in the middle or high school for the arts. To validate the OSPG-2, I analyzed items of the OSPG-2, and conducted the exploratory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I also examined the internal consistency. As a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 collected 40 items of the OSPG-2 finally. Furthermore, I could identify psychological construct of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The consequence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the model provided good fit to observed data. As a result of reliability analysi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internal characteristic verified Cronbach's $\alpha = .939$, an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extern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verified Cronbach's $\alpha = .887$. This result of validity study reflects the fact that the OSPG-2 is a valid scale and is able to input to gifted educational field instantly.

Key Words: The Gifted in Korean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The Observation Scale for Parents of the Gifted(OSPG), Screening, Validation

| |
|----------------------|
| 1차 원고접수: 2012년 2월 7일 |
| 수정원고접수: 2012년 3월 23일 |
| 최종게재결정: 2012년 3월 27일 |

<부 록>

<응답 요령>
 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자녀가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 보통이다(3점) / 그렇다(4점) /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해당되는 란에 √ 표시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 | | | 선별 준거 | | 정 도 | | | | |
|--------|------|-------|----------------------------------------------------------|--|-----------|--------|-------|-----|--------|
| 대 영역 | 소 영역 | 문항 번호 | 문 항 내 용 |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내재적 특성 | 음악성 | 1 | 나의 자녀는 유아시절(5세~7세), 새로운 노래를 들으면 비교적 정확하게 따라 부를 수 있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 | 타인이 부르는 곡조가 틀렸을 때, 나의 자녀는 ‘틀렸다’라는 지적을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 | 나의 자녀는 음정의 차이(혹은 변화)를 잘 지각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4 | 나의 자녀는 리듬에 대한 예민한 지각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5 | 나의 자녀는 노래를 들으면 가사보다 선율을 먼저 기억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6 | 나의 자녀는 일정한 선율을 듣고 그 선율을 비교적 쉽게 따라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④ |
| | | 7 | 나의 자녀는 포레에 비하여 음악(혹은 국악) 선율을 빨리 외울 수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8 | 나의 자녀는 악기 및 노래를 포레에 비하여 빨리 습득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9 | 나의 자녀는 스스로 음악을 분석하면서 듣거나 연주한다.(예: 화성진행이나 주제선율 따라가며 듣기 등)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0 | 나의 자녀는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잘 구별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1 | 나의 자녀는 리듬의 시작과 끝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2 | 나의 자녀는 음높이(pitch)를 구별할 수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3 | 나의 자녀는 음악의 역동성(dynamics)을 포레에 비하여 잘 느낄 수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창의성 | 14 | 나의 자녀는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5 | 나의 자녀는 포레 아이들에 비하여 ‘영똥한 제안이나 생각’으로 부모를 놀라게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6 | 나의 자녀는 주변으로부터 ‘독특한 아이야’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7 | 나의 자녀는 자기 스스로 ‘나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자주 한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선별 준거 | 정 도 | | | | |
|-----------|--------|---------------------------------------------------|---------------------------------------------------------|-----------|--------|------|-----|--------|
| 대 영역 | 소 영역 | 문항 번호 | 문 항 내 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내재적 특성 | 동기 | 18 | 나의 자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19 | 나의 자녀는 악기를 연주할 때 몰입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0 | 나의 자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혹은 국악)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1 | 나의 자녀는 장시간 연습하거나 음악(혹은 국악)을 감상을 해도 지루해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2 | 나의 자녀는 다양한 음악이론이나 음악역사에 지속적인 흥미를 보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3 | 나의 자녀는 음악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주위의 사물이나 벌어지는 상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4 | 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습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5 | 나의 자녀는 난이도가 있는 곡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포기하지 않고 완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6 | 나의 자녀는 음악(혹은 국악) 과제를 끈질기게 연습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7 | 나의 자녀는 음악(혹은 국악) 과제를 수행할 때 집중도가 높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28 | 나의 자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창이나 악기연습을 스스로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외재적 환경 특성 | 지지와 기대 | 29 | 나의 자녀는 음악(혹은 국악) 영역에서 성공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0 | 나는 내 자녀의 음악(혹은 국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1 | 자녀가 원한다면 나는 내 자녀의 음악레슨을 기꺼이 지원해주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가치와 열정 | 32 | 나는 내 자녀가 앞으로 음악(혹은 국악)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기를 기대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3 | 나의 지원으로 인하여 내 자녀의 음악능력이 날로 향상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4 | 나의 삶에 있어서 음악(혹은 국악)은 매우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5 | 만약 음악(혹은 국악)이 없었다면 나의 삶은 불행하였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열정 | 36 |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혹은 국악)은 매우 중요한 삶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37 | 나는 현재 연주 활동이나 연주회 관람 등 다양한 음악(혹은 국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38 | 나는 내 삶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또는 허락된다면) 다양한 음악 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선별 준거 | | | | 정 도 | | | | |
|-------|-----------------|-------|-----------------------------------|-----------|--------|-------|-----|--------|
| 대 영역 | 소 영역 | 문항 번호 | 문 항 내 용 | 매우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음악 교과 중요도 | 39 | 음악(혹은 국악) 수업은 내 자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과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40 | 음악교과는 국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만큼 중요한 교과다. | ① | ② | ③ | ④ | ⑤ |